

기아차 고성능 프리미엄 중형 세단 '스팅어' 타 보니...

제로백 4.9초... 짜릿한 속도감에 반하다

〈정지상태서 시속 100km 도달 시간〉



지난 14일 열린 프리미엄 중형 세단 스팅어 시승행사서 취재진이 운전한 차량들이 무안 톨매리해수욕장 인근 해안도로를 달리고 있다.

〈기아차 제공〉

폭발적 가속력 터보엔진 스포츠카 감성 그 자체 기아차 최초 HDA... 경쟁모델보다 가성비 뛰어나 낮고 와이드한 차체에 코너링때 롤링현상 없어

“어디서 저런 놈이 왔지. 강렬한 색사에서 풀어져 나오는 작렬하는 포스가 장난 아니다.”

기아자동차가 자존심을 걸고 내놓은 고성능 프리미엄 중형 세단 '스팅어'(Stinger)를 첫 대면했을 때의 느낌이 다.

지난 14일 기아차의 야심작 스팅어를 몰아봤다. 시승 코스는 기아차 광주공장장에서 출발, 무안국제공항을 거쳐 무안갯벌까지 직박장까지 왕복 110km 구간. 코스 대부분이 고속도로 구간이어서 속도감을 체감하기에 충분했다.

시승 차량은 3.3 터보 가솔린 2WD 풀옵션 사양이다. 기본 사양은 최고 출력 370마력에 최대토크 52kgf·m의 터보엔진을 자랑한다.

출발지에서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진입 전까지 약 12km 구간은 2세대 드라이브 와이즈 등 스팅어에 탑재된 다양한 최첨단 사양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기아차 최초로 적용된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를-정차 및 재출발, 자동감속 기능 포함' 성능이 제대로 실력을 발휘했다.

운전대에서 손을 떼자 앞차와의 간격 유지는 물론 차선을 따라 핸들이 스스로 반응했다. 특히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할 때도 특유의 강력한 힘으로 앞차량을 급방 따라붙을 수 있었다.

본격적인 고속도로 구간에 들어서자 질주본능이 서서히 올라왔다. 앞이 뻥 뚫린 구간에서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가속 페달을 최대로 밟자 막 쏘아 올린 화살처럼 빠른 속도로 튀어나갔다. 비행기가 이륙을 위해 가속 할 때 느낌처럼 급가속에서도 짜릿함과 속도감이 그대로 전달됐다.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설정하고 액셀을 밟으면 제로백 4.9초로 대변되는 주행 성능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100km의 속도까지 거침없이 치고 올라가더니 그 이상의 속도에서도 변속 충격 없이 부드럽게 '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밟는 대로 속도가 올라가는 것이 환상적이었다.

■기아차 스팅어 제원

구분	2.2디젤	2.0 T-GDI	3.3 T-GDI			
엔진	엔진형식	직렬 4기통	직렬 4기통 V6			
	과급방식	싱글 터보	싱글 터보	트윈 터보		
	배기량(cc)	2,199	1,998	3,342		
	최고출력(마력)	202	255	370		
	최대토크(kg·m)	45	36	52		
	변속기	자동 8단	자동 8단	자동 8단		
공차중량(kg)				1,710~1,790	1,650~1,740	1,785~1,855
복합연비 (km/ℓ)	2WD	17인치	14.8	-	-	
		18인치	14.5	10.4	-	
		19인치	-	10.1	8.8	
	AWD	17인치	13.5	-	-	
		18인치	13	9.6	-	
		19인치	-	9.4	8.4	

〈자료:한국에너지공단·기아차 제공〉

그런데 스팅어의 속도감은 다른 차와 뭔가 다른 느낌이였다.

액셀을 밟는 대로 따라오는 가속성은 물론 핸들에 묵직함이 전달되면서 자신감을 준다. 오하려 고속에서의 안정감을 더하며 운전하는 재미도 선사한다. 이는 즉각적인 응답성을 제공하는 '랙 구동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R-MDPS)' 시스템을 적용해 세밀한 핸들링 성능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기아차의 설명이다.

코너링도 퍼포먼스 세단답게 우수했다. 고속도로를 빠져 나와 국도로 진입하는 인터체인지 부근 비교적 급격한

코너에서 꽤 빠른 속도로 달렸는데도 차체의 롤링현상 없이 속도를 그대로 살려 회전 구간을 통과했다.

제동력 또한 수준급이었다. 경쟁차종 대비 큰 차이는 물론 1.7t이나 되는 무게 때문에 급정거시 밀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했으나 괜한 걱정이였다.

특히 이번 3.3 터보 스팅어에는 스포츠카 전용 썸머 타이어를 기본 장착했는데, 주행 안정성을 높이는 신의 한 수였다. 타이어와 서스펜션의 궁합이 잘 맞는 느낌이었다.

엔진음은 그리 크지 않지만, 가속을

줄 때만큼은 확실히 의사표현을 해왔다. 으르렁 소리가 좀 더 컸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들었지만 이는 기본에 따라 바꿀 수 있는 '엑티브 엔진 사운드'로 달랠 수 있었다.

스포츠세단이지만 품질음과 노면음은 크게 다가오지 않았다. 스포츠카처럼 낮은 시트포지션은 운전자의 몸을 타이트하게 감싸고, 낮지만 넓은 시야를 확보해 땅에 붙어 달리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도록 했다.

주행이 어느정도 익숙해진 후 살펴본 차량 내부는 럭셔리했다. 버킷시터 앞의 시트부터 D컷 스티어링 휠, 알로이 페달 등의 스포츠카 아이템들은 스포티한 주행감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항공기를 모티브로 한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 역시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의 품격을 더욱 살려준다. 내부 인테리어 곳곳에 적용된 반광 크롬 재질과 높은 가죽 스티치는 프리미엄이라는 수식어에 걸맞다.

다만 후면 유리 폭이 좁아 뒷쪽 시야가 답답하게 느껴진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다. 2열은 성인 남성이 앉아도 부족함없는 공간을 갖췄지만, 실제 2인이 뒷좌석에 앉았다면 헤드룸을 채워 운전자의 후방 시야가 더 답답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코닉세그 슈퍼카 'CCXR 트레비타(Trevita)' <출처:이집터>

54억4000만원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 코닉세그 'CCXR 트레비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 1위로 코닉세그의 'CCXR 트레비타(Trevita)'가 꼽혔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 매체 디지털 트렌드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 톱 10에 따르면 스웨덴 슈퍼카 제조사 코닉세그의 트레비타가 480만 달러(54억4천만 원)로 1위를 차지했다.

선정 기준으로는 최근 제조됐으며, 합법적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 중에서 출시가격에 따라 순위를 매겼다. 경매 시장에서 거래되는 클래식 카, 도로 주행이 불허된 차 등은 후보에서 제외됐다.

트레비타는 표면을 다이아몬드로 뒤덮은 스포츠카다. V8 4.8ℓ 엔진으로 2.9초 안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한다. 한정판으로 3대 정도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복서 메이웨더가 소유한 차로도 유명하다. 2위에는 람보르기니의 베네노(Veneno)가 선정됐다. 람보르기니 50주년 기념으로 나온 450만 달러(51억 원) 짜리 슈퍼카로, V12 6.5ℓ 엔진에서 740마력이 나온다.

공동 3위는 W모터스의 라이칸 하이퍼스포트(Lykan Hypersport)와 부가티의 베이론(Veyron)이 올랐다. 몸값은 340만 달러(38억5천만 원) 정도다. 라이칸 하이퍼스포트는 영화 '본노의 질주 7'에 등장한 '아랍의 슈퍼카'로도 불린다.

올해 1~3위 슈퍼카 서열은 지난해와 변동이 없었지만 5위부터는 바뀌었다. 페라리의 피닌파리나 세르지오(Pininfarina Sergio)가 300만 달러(34억 원)로 5년차로 급부상했다. 전설적인 스포츠카 디자이너 피닌파리나 세르지오를 기리고자 한정판으로 6대만 내놨으며, 페라리의 초청을 받아야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위는 파가니의 와이라(Huayra) BC(260만 달러·29억5천만 원)가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한 계단 내려간 것으로, 영국 BBC '탑기어' 방송에서 F1 서킷 2.8km를 1분 13초80 만에 달려 화제를 모았다.

공동 7위는 각각 250만 달러(28억3000만 원)인 페라리의 F60 아메리카(America)와 부가티의 차론(Chiron)이 선정됐다.

공동 9위로는 코닉세그의 원(One : 1)과 레제라(Regera)가 나란히 올랐다. 각각 200만 달러(22억 7000만 원)다. 이에 따라 코닉세그는 10위 안에 슈퍼카 3대의 이름을 올렸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의 마이바흐 엑셀레로(Maybach Exelero)는 800만 달러(90억7000만 원)로 최고가지만 상징적으로 단 한대만 나온 데다 비교적 한참 전인 2004년에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명예상'(honorable mentions)으로 언급됐다. /연합뉴스

적은만큼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초대 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 사주, 운세, 궁합, 택일
시험,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우리원에너지

북구 중흥동 284-14번지 (튼튼정형외과옆)
"영업용 친환경 세라믹 화구교체
막히지 않고 그을음 없고 가스냄새 끝"
각지역 대리점 및 영업하실분 모집
☎062)524-1512, 010-4607-1512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고 전 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062)224-4869

맘스터치 빛가람1호점

전남 나주혁신도시 빛가람중학교앞
단체주문 및 예약환영
"전화로 주문하시고 15분후에 매장을
방문하시면 바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061)333-2256

바른글씨교정원

북구 서암대로 186 성지빌딩 3층 전대점문서거리
약필글씨 책임교정원, 학원생 수시모집
교대, 사대, 임용반, 취업반, 감사반
원장 직접 개인지도
☎062)525-9933, 010-8703-3378

갤러리 봄

동구 예술의 거리 20-6
회화, 설치, 조각 등
다양한 작품전시장
대표 최정화 ☎010-9078-1800

튼튼동물병원

동구 계림동 이마트상가층
각종 백신 및 미용 중성화수술, 호텔
각종애완용품 취급 전문
☎062)511-7582, 010-3263-7582

한마음정육식당

북구 용봉동 159-9 (북구청 전대후문)
정육식당형 돼지고기전문점
돼지1마리(1kg) 37,000원, 돼지반마리(500g)
19,000원, 국내산생삼겹(250g) 12,000원
대표 김진표 ☎062)261-8292

6·92 (육구이)

북구 우산동 중문로 33-1번길
(우산초등학교 후문입구)
간장숯불쇠고기, 숯불구이, 석쇠숯불곰탕
석쇠숯불막장 배달전문점
☎062)464-0692

행복공인중개사

동구 중앙로 218번지
고객만족, 책임중개
대표 강인철 ☎062)225-3303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신신 예술의 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고흥나루터

동구 지산동 705-9 (범원 뒷길)
하모(참장어), 사브사브 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한국기담명리철학학회

북구 우산동 205-18번지 근린공원옆
개인단체 환영(강의내용: 사주, 음력,
양력, 사주학, 수지학, 수축점, 이침)
☎062)432-1324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대,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전병양 ☎062)263-2223

박당 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 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예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국수나무옹봉점

북구 용봉동 1091-4번지 (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천수사백마장군

북구 중흥동 800-28 동부교육정보빌딩로
인생상담, 병점, 사주, 궁합, 부적
영어로 합니다.
대표 허길배 ☎010-2828-2008